

HDTV브라운관

국내 개발

생산기술研-3社 공동

HDTV(고선명TV)용 브라운관이 日本에 이어 세계 첫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돼 HDTV 국산화 시대가 열렸다.

차세대 TV로 알려진 HDTV는 세계적으로 日本과 미국, 유럽 등이 정부차원에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제품으로 브라운관은 이의 핵심이 된다.

美國과 유럽에서는 아직 HDTV용 브라운관이 개발되지 못해 HDTV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인 데 우리나라가 이번 독자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日本과 함께 HDTV 실용화 초기단계부터 HDTV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HDTV용 브라운관은 지난 '90년 6월당시 상공부산하 생산기술연구원(HDTV개발단장 柳榮俊)주도하에 三星電管과 金星社, 오리온전기 등 브라운관 3社가 공동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최근 3社 모두 개발을 완료하고 28일 三星電管이 먼저 시제품발표회를 통해 선보였다.

三星이 선보인 브라운관은 32인치 크기에 가로 세로 화면비율이 영화관 스크린과 동일한 16대 9이며 수평해상도가 기존 TV의 2배인 1,000라인이다.

또 고기능 전자총을 채용, 화면 전체의 고른 초점으로 선명도가 뛰어나고 중량이 가벼우며, 화면곡률의 평면도가 높아 시청하기가 편리하도록 설계됐다.

金星社와 오리온전기도 각각 HDTV용 브라운관 독자모델을 개발, 현재 종합전자 4社에 견본을 제공한 상태이며, 오는 8월 大田 EXPO에 전시할 계획이다.

三星電管은 이번 HDTV 브라운관 개발성공을 계기로 올 6월말까지 水原공장 내에 월 5천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 수출에 나서는 한편 브라운관의 기종 다양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XGA급 LCD 개발

(주) 금성사

金星社(대표 李憲祖)는 최근 해상도가 뛰어난 XGA급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인 12.3인치 TFT(박막트랜지스터)방식 LCD(액정표시소자)를 개발했다.

동사가 '91년 8월부터 1년 6개월만에 개발에 성공한 이 LCD는 XGA급으로선 일본 샤프社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개발된 제품으로 화소수가 VGA급 TFT·LCD의 90만개에 비해 235만 9,300개로서 고선명, 고화질을 실현했다.

또 시야각이 좌우 55도, 화면휘도 m<sup>2</sup>당 80칸텔라이상, 콘트라스트 비 100이상으로 샤프가 내놓고 있는 11.8인치 제품보다 시야각이 넓고 화면휘도가 높다.

이 XGA급 TFT LCD는 랩톱PC 워크스테이션용 모니터 등에 사용가능하나 아직 사용화되지 않은 첨단제품이다.

동사는 이번 XGA급 TFT LCD개발로 향후 HD(고선명)TV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핵심기술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통신용 인터페이스 개발**  
금성일렉트론 (주)

금성일렉트론(대표 文程煥)은 3개의 송신게이트와 5개의 수신게이트를 1개의 칩에 내장한 직렬 통신용 인터페이스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사가 개발한 제품은 1개의 직렬통신에 필요한 송신용 칩 1개와 수신용칩 2개 등 3개의 칩을 1개의 칩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은 단일회선통신의 단점인 잡음과 혼선을 억제할뿐 아니라 최대 1km까지의 통신거리를 지원할 수 있다.

금성일렉트론은 5월부터 이 제품의 양산에 들어가 동남아지역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東南亞 키폰 技術教育 實施**  
금성통신 (주)



金星通信(代表 白重英)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7개국 거래선들에 대한 키폰시스템의 기술교육을 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태국에서 실시했다. 이번 키폰기술교육은 '4월 고객의 달'의 행사 일환으로 해외고객들의 기술력과 서비스력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해외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품개발 및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행사이다. 이번 교육에 금성통신에서는 연구소, 공장 설계실, 해외사업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동남아 거래선의 엔지니어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했는데, 전반적으로 키폰관련 지식이 상당수준에 올라있어 동남아의 키폰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금성통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금성통신은 6월경에도 중남미 등의 해외고객들을 대상으로 키폰기술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超小型/超輕量 携帶電話機 곧 市販**  
금성통신 (주)

국산 휴대전화기 제조업체가 축적된 독자기술로 크기, 형태, 기능, 품질 등에서 선진외국산과도 손색이 없는 휴대전화기를 개발하여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金星通信(代表 白重英)은 최근 250그램대의 초소형/초경량으로

첨단기능이 실장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다기능, 고급형 휴대전화기(모델명: 금성핸디폰 셀스타 GC-600)을 개발하여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시판한다.

지난 연말 이미 전파연구소의 형식검정을 완료한 금성핸디폰 셀스타 GC-600은 지난 연말부터 구미, 호주, 아시아지역에 선보인 결과, 활발한 구매상담이 이뤄져 3만여대의 수출물량을 확보하였다. 금성통신은 이번 제품을 국제 컴퓨터, 통신기기, OA기기 전시회인 KIECO'93(93. 04. 21~04. 27) : 한국종합전시장에 출품하여 관련업계 및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켜 절찬리에 전시되었다.

금성핸디폰 셀스타 GC-600은 FLIP타입 및 넣을 수 있는 안테나, 3개의 윈터치 다이얼링 기능 108개의 대용량 메모리를 활용한 간이 전자수첩기능, 휴대중에도 마이크와 이어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간이 핸즈프리기능, 배터리 1.5시간 급속충전기능, 통화중 대화녹음/재생기능, PC나 FAX로 셀룰라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기능, 우리말음성인식기능 등이 있어 고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간편성을 향상시킨 다기능, 고급형 기종이다.



**486PC 美시장  
강타  
대우통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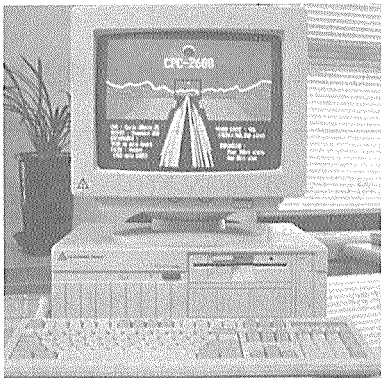
대우통신(대표 朴成圭)이 최근 'WINPRO'라는 새로운 상표로 수출을 시작한 486PC가 미국시장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우통신의 미국현지법인인 리디에지社를 통하여 발표된 'WINPRO 486'은 수출모델중 처음으로 사이릭스 486SLC CPU를 채택한 데스크탑 모델로서 캐시메모리 및 RAM의 최대용량을 64KB 및 16MB로 제한하고 확장슬롯은 8개에서 5개로, 드라이브 수는 3개로 줄이는 등 필요이상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여 저가형으로 맞춘 것이다.

대우통신이 PC 수출상표 이원화 전략을 채택하고 미국의 대형 유통시장을 겨냥하여 처음으로 내놓은 제품인 'WINPRO 486'은 지난 1월 미국에서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불과 2개월여만에 약 4만5천대 가량이 팔려 나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대우통신은 잇따르는 주문물량을 맞추기 위해 최근 24시간 공장가동에 들어갔다.

이처럼 대우통신의 對美 PC수출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래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 최근 공격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대우통신의 해외 마케팅전략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PC에 '모델 D'라는 단일 상표를 적용해 왔으나, 극심한 가격경쟁과 함께 유통경로 및 소비자 취향이 한층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하에 최근 일반 소비자가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WIN-PRO'라는 새로운 상표를 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픽 486PC

#### 출시

(주) 삼보컴퓨터

三寶컴퓨터(대표 李正植)는 VESA로컬버스를 채용, 비디오 기능을 대폭 보강해 최대 1,600만컬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래픽기능이 강화된 486PC 2종(모델명 트라이젠펜 486/66vc, 486/50f)을 내놓았다.

이 제품은 기존 486제품이 2백56~6만5천컬러가 지원되고 있는 데 반해 2MB의 비디오 램을 적용, 24비트 컬러지원이 가능해 그동안 매킨토시가 석권해왔던 그래픽시장에서 일대 접전이 예상된다.

이번에 나온 제품중 상위기종인 486/66vc는 CPU로 486DX2/66을 채용했으며, 8M의 기본메모리를 갖추고 최대 64MB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특히 펜티엄의 오버드라이브 프로세서인 P24T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340M를 채용했다.

### 8mm 캠코더용

#### 정밀모터 2종 국산화

삼성전기 (주)

三星電機(대표 尹鍾龍)가 8mm 캠코더용 정밀모터의 국산화에 성공, 양산에 들어갔다.

지난 '90년 11월부터 15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8mm 캠코더의 헤드드럼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는 드럼모터와 캠코더의 테이프를 구동하는 캡스틴모터 등 두가지 제품을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이 제품은 회토류 마그네트·자기저항소자 등 신기술을 이용해 기존 제품보다 크기 30%, 무게 10%로 경박단소화시킨 것이다.

동사는 20억원을 들여 생산라인자동화체제를 이미 완료, 연간 1백 5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밀모터는 그동안 일본업체들이 첨단기술로 분류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공급물량을 조절, 국내업체들이 캠코더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개발로 1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국산캠코더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캠코더시장은 올해 국내 30만대, 세계 1,100만대 규모로 매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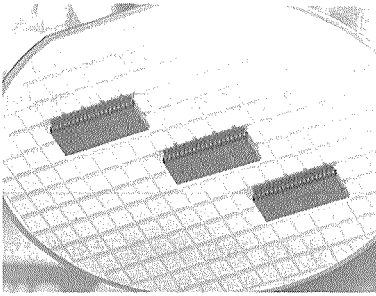
### 2M 비디오램

#### 본격 출하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金光浩)는 정보처리속도가 60나노초(1나노는 10억분의 1초)인 초고속의 2M 비디오램을 양산, 출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이번에 양산에 들어간 2M 비디오램은 0.6미크론(1미크론은 1천분의 1mm)의 회로선폭을 갖춘 첨단 제품으로 손톱 절반만한 크기의 칩 속에 약 200만개의 트랜지스



터를 집적시킨 고집적 제품이다.

동사는 이 제품이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정보초리속도 60나노초, 모니터로 화상정보를 주사하는 속도 18나노초 등을 실현, 업계 동종 제품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양산에 들어간 2M 비디오램은 비디오램의 주요 기능만을 갖춘 익스텐디드 피처와 전 기능을 갖추 풀 피처 등 2개종으로 이중 풀 피처 제품을 초고속 전송모드기능, 전송데이터 조절기능, 2개의 램 데이터 통로 사용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그래픽 처리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CD 비디오  
국산화 성공  
삼성전자 (주)**

三星電子(대표 金光浩)는 세계 두번째로 CD에 완전動畫을 실어 이를 영상으로 74분동안 재생시킬 수 있는 CD비전(CD 폴모션비디오)을 개발, 올 가을부터 보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사가 21명의 연구원과 15억원을 투입, 日마쓰시타에 이어 개발에 성공한 이 CD비전은 기록 및 재생기기용動화상과 음성신호의 표준화를 위해 구성된 국제 動화상전문위원회(MPEG)에서 확장한 압축설계표준기술 MPEG 1규격을 활용한 것이다.

동사의 이 CD비전은 미국 C큐브社가 개발한 폴모션(動화상)칩을 채용하고 있는 데 디지털 영상과 음질을 완전동화 및 고음질로 재생해 주는 첫단계 AV(오디오비디오)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CD비전에 적용된 動화상압축과 복원기술은 1초에 1.5메가바이트의 영상과 음향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며 화질은 VHS VCR 수준이다.

三星電子는 이 하드웨어와 함께 光소프트사업팀을 활용, 소프트웨어도 선보일 계획이며, 우선 노래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뮤직CD를 하반기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 영화CD도 선보일 예정이다.

**홍승채 사장을  
회장으로,  
한홍섭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  
한국컴퓨터 (주)**

동사는 지난 3월 12일 구미공장에서 열린 1993년 정기주주총회 후 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홍승채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에 추대하고 한홍섭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였다. 당사의 이번 인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컴퓨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동사는 그동안 연구 개발 및 기획, 수출업무를 담당해 온 한홍섭 부사장을 사장에 선임함으로써 정보산업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드웨어 제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강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

었다.

신임 한홍섭 사장은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하여 컴퓨터 업계의 세계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승채 회장과 함께 대내외적인 경영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다.

**도서관 전산화  
세미나 개최**  
한국컴퓨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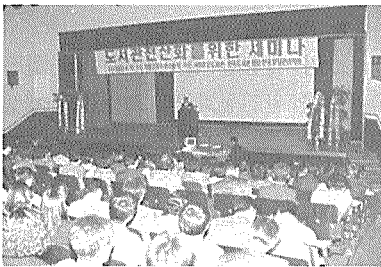
한국컴퓨터(주) (대표 한홍섭)는 지난 4월 16일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후원으로 외국의 도서관 전산화 사례,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전산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350여명의 참석자가 참가해 최근의 도서관 전산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으며, Korea UT-LAS Service center 소개, Korean CATSS발표, 캐나다 토론토 대학,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와 동시에 한국컴퓨터는 Korean CATSS 공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자체 DB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는 50만건, 올 연말까지 모두 250만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내년까지는 500만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문헌정보서비스센터를 발전시켜 동서양 서적을 망라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세계 각국의 도서관망을 연결하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캐나다의 UTLAS사가 개발한 목록지원시스템 (CATSS)을 CD ROM으로 국내에 공급해 왔다.



**超高光澤 ABS수지  
("SG SERIES") 開發**  
한남화학 (주)

한남화학(사장 이덕림)은 超·高·新·極의 尖端技術에의 挑戰을 동사 기술연구소의 슬로건으로한 기술개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연구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동사는 기술의 差別化를 위해, ABS수지의 고기능화, 고품질화를 추구하고 있다. 금번 개발한 초고광택 ABS수지는 종전의 ABS수지가 갖는 성형조건에 따른 광택성 변화의 문제점을 유화중합법으로 고무입자를 특수하게 제조하므로써, 성형온도, 압력 및 금형온도 등에 의한 광택성의 영향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자유자재의 착색성, 표면 광택성, 고급감의 최대의 Sales Point이다.

"SG Series"는 용도에 따라 초고광택 고강성, 초고광택 양유동 및 초고광택 충격용 등 User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Grade의 공급이 가능하며, 주 용도는 전화기, 진공청소기, 에어컨, 세탁기를 비롯한 Audio의 하우징(Housing)과 일반잡화 등 수려한 외관이 요구되는 분야

이다.

또한 동사는 초고광택 특성을 보유하면서 금속질감의 외관을 갖는 Metallic Color ABS 수지인 “SM Series”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종전제품은 성형후 분체도장 등의 2차 가공으로 금속질감을 갖게하는 방식에서 In-Line가공법을 개발, 적용하므로써 혁신적으로 가공단계를 삭감하여 가공비용의 절감과 표면불량 발생율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화려한 금속질감을 Sales Point로 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의 울산공장에서 금년 3월부터 “SE Series” 및 “SM Series”를 연간 20,000톤/월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멀티미디어 LD

개발

해태전자 (주)

해태電子(대표 安秉暉)가 컴퓨터와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를 결합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기능의 멀티미디어 LD를 개발했다.

해태전자가 지난 6년간 약 50억원을 투자해 독자 개발해 낸 멀티미디어 LD는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CD-I(콤팩트 디스크 인터랙티브)를 한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대용량 LD를 기억매체로 이용하고 PC와 연결해 動화상 등 모든 정보처리를 컴퓨터상에서 가능케 한 본격 멀티미디어시스템이다.

LD-I 또는 산업용 LD라고도 불리는 이 시스템도 현재 일본의 소니와 파이오니어社만이 상품화 해놓고 있는 데 압축오디오 기술을 이용해 LD의 오디오 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한 것은 해태전자가 처음이다.

멀티미디어 시장

진출

현대전자산업 (주)

現代電子(대표 鄭夢憲)가 차세대 가전제품으로 인식되는 멀티미디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전자는 창사 10주년인 올해를 제2의 도약기로 정하고 차세대 전자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가전사업에 본격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대전자는 지난 3월 뉴미디어 사업부를 발족하고 그동안 반도체·컴퓨터사업분야에서 축적한 디지털정보처리기술을 일반 제품에 응용하는 AV(오디오·비디오)기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사업에 주력해 온 현대전자는 반도체 연구소에서 디지털 AV정보처리를 위한 부품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PC(개인용 컴퓨터)와 HDTV(고선명TV)를 위한 動畫像 압축용 칩과 음향기기 관련 ASIC 칩 등을 개발하고 있다.